

與 반대에... 세월호 국조 진도 현장보고 무산

국회서 보고 진행 ... 해수부·해운조합 부실관리 질타

세월호 가족대책위 “약속 어긴 여당의원 공식 사과 하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1일부터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받을 것을 논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논란 끝에 국회에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2일 열리는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 장소를 진도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의원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해양수산부 직원 100여명이 전날 진도로 내려 갔다가 밤 늦게 기관보고 장소가 국회로 변경되자 일부는 새벽에 서울 여의도로, 나머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청사로 각각 올라오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총체적인 해운관련 업무에 대한 부실 관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통케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나”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신진천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구명정) 44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수부가 ‘중양사고 수습본부’ 초기 발표 자료를 대폭 수정했다”면서 “해수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19회에 걸쳐 수정했다”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 발언 내역 등이 삭제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미 의원은 “지난 4월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는 사고지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막말 승강기를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사후대책보다는 진상규명에 중점을 뒀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정치권이 정부를 몰아세우며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전날 기관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기관장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원영 의원에 대해 대책위는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을 보며 ‘내가 당신에게 말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다는 의미로 ‘경비는 뭐하느냐’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재가 된 학교

문화재로 등록된 광주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제590호·위)과 ‘조선대 부속 옛 교사(校舍)’. <조선대 제공>

“새누리 변화 있어야 미래 있어”

광주 온 이인제 의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인제 의원은 1일 “새누리당은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절할 정당 개조 없이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개조는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전통만 빼고 다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호남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며 “혁신된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호남인들에게 어느 정도 빛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대 부속中 옛 건물, 의대 본관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1일 광주 ‘조선대 부속중학교 옛 교사(校舍)’와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등록문화재 제589호 ‘조선대 부속중학교 옛 교사’는 벽돌을 쌓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Truss·아치형 지붕 골조)를 얹은 1층 규모의 건축물로,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중북도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교실을 배치한 전형적인 학교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옛 교사가 조선대 최초의 건물이자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오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590호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층높이가 높아 수직으로 긴 창호를 설치해 수직성을 강조한 외관이 특징이다. 1957년 약학대학 교사로 건립된 뒤 1962년부터 의과대학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대학에서의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동시대 건축 기술과 대학 교육시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서천 옛 장항미곡창고(제591호), 고양 흥곡사 대방(제592호),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제593호), 양평 지평양조장(제594호)이 문화재로 함께 등록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인 투쟁이다. 선택을 넘어 정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며 정치를 진화시킬 수 있는 묘약일 수도 있다. 7월30일 전국 1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이루어질 것인지, 안철수 사람이 몇 명이나 진출할 것이며, 울드 보이들 중에서 누가 어느 곳에서 재기할 것인지 등이다.

특히 신인들이 몇 명이나 등장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정치 진화를 위해서 젊고 용기 있는 후보로 ‘호남의 딸’ 권은희를 전락공천 해보면 어떨까.

나는 2013년 8월 28일자 본 칼럼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우리시대의 잔다르크 ‘권은희의 촛불을 지켜야한다’고 썼다.

이 먼저 호남 출신인 권은희를 이번 선거 후보로 영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정연 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이다.

권은희가 출마하면 그녀의 폭로가 진정성을 잃게 된다는, 결국 선거에 출마하려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잊으려 한다는, 여당 공격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 하는 등 새정연의 변명이 구차스럽다.

심지어 국정원 대선개입의 상징인 권은희는 2017년 총선 때 써먹기 위해 아껴두었다가 광주만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의 딸로 키우자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은희는 이번에 호남이나 서울 등지에 전락공천 하는 것이 옳다. 여성적 세계관이 빛을 발하는 이 시대에, 용기있는 여성 국회의원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도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권은희는 1일 기자회견에서 출마설을 일축

권은희와 재·보궐선거

그러나 우리는 권은희를 지키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승진에서 탈락되었고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되었으리라 사표를 냈다.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가 되고 부당성을 지적한 권과장은 경찰조직에서 견내리지 못해 사표를 낸 것이다. 우리는 한 때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환호하고 박수만 보냈을 뿐, 그 누구도 그녀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이제 광주가 권은희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는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권은희를 국회로 보내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임재경(전 한겨레 부사장), 홍성두(서울대학교 수), 윤영자(고 리영희 선생 부인)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대학교수와 언론인 등 각계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행동’은 권은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명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권은희 선생님을 더 나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길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운동’이 나서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하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주제 사라마구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대표작 ‘눈 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다. 영화도 만들어졌다. 어느날 자동차 안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후, 도시에 실명 전염병이 퍼진다. 시민들 모두가 눈이 멀고 안과 의사 부인 한 사람만이 시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시력을 잃은 척하고 남편을 지키며 “가장 두려운 건 오직 나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한다. 이 소설에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보지 못한다면 실명한 것과 다를 바 아니라는 것이 알려고리다. 두 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존엄성이고 인간사회의 도덕성이다.

이번 선거에서 권은희를 국민의 대표로 살려 내지 못하면 광주는 눈 먼 사람들의 도시가 될 것이다. <소설가>

http://www.joytour.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여행일의 즐거움 동반!!!

조이투어 JOY TOUR CO.,LTD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7-151-1번지 (한글영문 병행 가능)

대표이사 최 금 환

꽃보다 누나 따라 잡기 서유럽 / 터키일주 / 발칸반도 / 스페인 / 포르투갈

터키 일주 9일 2,590,000~
서유럽 5개국 10일 3,2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비(90유로), 성금착지

무안 → 마카오 & 홍콩 전세기!!!
7/27~8/7 매주 목, 일 4회 운항!!
홍콩/마카오 4일&5일 949,000~
홍콩/마카오/심천 4일&5일 999,000~

여름휴가철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추천 여행 !!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99,000~
출발일 : 7/26/7/28/7/30/8/2/8/13 *광주 출/도착, 전통료칸+유후다케 시내 특급호텔(여름가방)
*불포함 사항 : 여권발, 개인경비, 국내수송, 항공료(30,000원), 전세식(3식)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569,000
규슈 3박4일 7/26/7/28/7/30 출발 화형

아빠어디가 따라잡기 하우스팀보스 우스팀보스 특급호텔 숙박!! 569,000~
규슈 3박4일 7/26/7/28/7/30 출발 화형

t' way 로떠나는 북해도 1,179,000 ALL포함 (7/21, 8/18, 8/25) (광주, 출→도착)

국내 여행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비(90유로), 전세식(3식), 유류할증료 포함
목포-제주도 3일 선박 15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비(90유로), 전세식(3식), 유류할증료 포함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불포함 : 항공료(항공기종)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 항공료(항공기종)
남시(속초)는 자차, 무술(금배령)생동아쉬리 2일 200,000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여행!!

무안-연길전세기!!! (M, H항공) (6/27~8/15, 총 15회 매주 월금 출발)

실속 연길, 백두산(북파), 용정, 도문 4일 99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 용정, 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05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08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 유류세(W93,000), 중국단체비자(W33,000), 가이드/기사비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3-1호]
*공통조건 :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 원, 국내여행 5천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고급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차역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리 기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장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석권, 각종 비자비행 포함)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